

집 떠나면 고생...스테이케이션·북캉스 열풍

(stay+vacation) (book+vacance)

지난달 31일 광주 시내 한 서점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책을 읽으며 더위를 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서점이나 집에서 알뜰하게 휴가를 보내는 트렌드가 정착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불황기 여름휴가 신포속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란 광고 카피가 한때 유행했다. 그 시절 휴가철만 되면 떠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디론가 떠났다. 하지만 지금은 옛말이 되고 말았다. 장기 불황에 따라 직장인들의 주머니가 얇아지면서 어디론가 떠나지 못한 '방콕족'들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들 '방콕족'들은 스스로 진화했다. '방'에 '락'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테이케이션', '북캉스'로 자기발전하더니 올해 휴가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집 나가면 개고생 집에서 편안하게 직장인 정운미(32)씨는 올 여름휴가는 집에서 즐길 계획이다. 집에서 여행책을 읽고 이국적인 풍경이 있는 영화를 보면서 편안한 세계 여행을 꿈꾼다. 답답해지면 집 근처 서점이나 영화관, 수영장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원한 휴가를 즐길 생각이다. 일명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이다. '스테이케이션'은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를 합친 합성어다. 말 그대로 머문 집에 있으면서 마음은 세계 각지로 떠나는 것이다.

서점 서적 판매 급증 여름특수

'북캉스(book+vacance)'족도 있다. 휴가동안 피서지로 떠나지 않고 독서를 하며 보내려는 변화된 휴가 트렌드를 표현한 말이다. 이를 대변하듯 서점마다 서적 판매

가 10~20% 가량 늘었다. 삼복서점 상무점은 7월 들어 서적 판매가 작년보다 10% 정도 늘었고, 올해 평균에 비해서도 10%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여행·교양 관련 서적 판매도 늘었지만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특수가 일면서 학습 교재의 판매가 급증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서관을 찾는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마련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다.

해외여행 크게 줄어 알뜰휴가 대세

◇불황인데 아까지 아껴='알뜰 휴가'가 대세다. 우선 해외여행객이 크게 줄었다. 최근 한 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하계휴가를 국내에서 보낸다는 사람이 84.8%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9.4%보다 훨씬 많았다. 물론 신종플루의 영향도 있었지만...

자영업업을 하는 박동재(40)씨 가족 역시 올 휴가 테마는 '알뜰'이다. 휴가지도 백운산계곡으로 정했고 숙박 역시 호텔이 아닌 민박을 선택했다. 먹을거리도 집에서 모두 가지고 갈 계획이다.

일부 직장인은 어디 놀러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 머물면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 냈던 지인들을 만나는 '인맥 관리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 '인맥 관리 휴가'를 통해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 지난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힘겨웠던 사회생활을 위로하고, 휴가 이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상에 돌아가자는 것



이다. ◇여행도 착하게 '착한여행'=과거 7, 8월에 집중돼 있던 직장인들의 휴가문화도 바뀌고 있다. 짧은이들은 오히려 무더운 7, 8월을 피해 9월이나 10월을 선호한다. 덜 더워지고 비용도 덜 들기 때문. 특히 추석을 전후하면 명절연휴와 합쳐 보름정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휴가 방식이 연중휴가로 바뀌면서 휴가기간도 짧아졌다. 필요한 때 나눠가기가 일상

화했다. 해남 화산이 고향인 직장인 정해정(42)씨는 매년 8월 셋째주 토·일요일 고향집에서 가족모임을 한다. 어머니와 형제, 조카들까지 3대에 걸쳐 70여명이 모인다. 핵가족 시대 가족의 정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휴가철 특정한 날을 정해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다. 이날 손자들은 농촌체험을 하고 장기자랑도 한다. 사위들은 쌓인 농사일을 거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나원침 (7870) 김장동



해남 마을 주민 6명 복어요리 먹고 중독

해남의 한 마을 주민 6명이 복어요리를 먹고 중독 증세를 호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밤 8시께 박모(48)씨 부부 등 해남군 송지면 주민 6명이 잇따라 마비 증세를 보여 해남병원과 광주 조선대병원 등에서 분신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복어를 잡아 탕을 끓여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대부분이 호흡을 못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박씨는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대포통장 팔아넘겨 3,600여만원 챙겨

광주북부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전화사기단에 팔아넘긴 진모(38)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간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려면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속여 개인당 6~7개의 통장을 만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통장과 카드를 한 개당 20만원을 받고 전화사기단에 팔아넘겨 3천6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통장과 카드 등 각각 60개를 압수했으며, 진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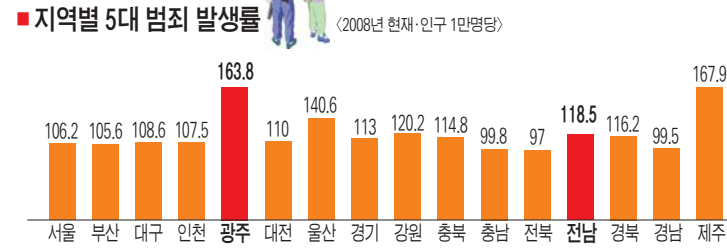
가스배관 타고-11차례 원룸 털어

○광주동부경찰은 지난달 31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 원룸만을 골라 금품을 털 김모(20·광주시 동구 계림동)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M원룸 2층에 사는 윤모(30)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70만원과 금반지 등 1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11회에 걸쳐 1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미리 원룸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잠금장치가 풀린 창문으로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서 범인의 증거물을 확보, 김씨를 검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5대범죄 발생 전국 최다

지난 5년 증가율 전국평균 2배 이상

해 40.3%(6천808건)나 급증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의 범죄발생 증가율(19.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남은 지난해 5대 범죄 건수가 2만1천149건으로, 5년새 16.5%(2천 998건) 늘었다.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이며, 이 범죄도 범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해 경찰 인력 배치 및 범죄예방 심층 분석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달 31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5대 범죄 발생건수는 2만3천706건에 이른다. 이는 5년 전인 2004년(1만6천898건)에 비



지역별 5대 범죄 발생률 (2008년 현재 인구 1만명당) 서울 106.2, 부산 105.6, 대구 108.6, 인천 107.5, 광주 163.8, 대전 110, 울산 140.6, 경기 113, 강원 120.2, 충북 114.8, 충남 99.8, 전북 97, 전남 118.5, 경북 116.2, 경남 99.5, 제주 167.9. 강원(120.2건) ▲전남(118.5건) 등이 전국 평균(111.9건)을 웃돌았다. 광주는 특히 지난해 경찰 1인당 당 인구 수가 515명으로, 1년 전(528명)에 비해 2.5%(13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07년 광주경찰청 개청에 따라 인력이 다소 보강된 것이지만, 같은 기간 범죄발생률은 되레 늘었다. 지역별 경찰관 1인당 인구는 경기도가 7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염주체육관 실내빙상장 시설 개보수 3일 재개장

광주 염주종합체육관내 실내빙상장이 개장한 지 12년 만에 노후시설 개보수를 마치고 오는 3일 재개장한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달 31일 "지난 1997년 개장한 지역 유일의 실내빙상장이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 최상의 빙질을 제공하기 위해 냉각공일을 전면 교체했으며 제습기도 보수했다. /유현석기자 chadol@

주정차 과태료 납부 북구 자동 시스템 운영

광주시 북구는 1일부터 주정차 과태료 납부 가상계좌와 연계시스템을 개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불법주정차 개인정보 시스템과 연계, 고지서에 개인 전용 고정식 입금 가상계좌를 부여해 납부의무자가 가상계좌에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수납처리되고 압류사항 등이 자동 해제처리되는 시스템이다. 가상계좌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인턴넷과 모바일,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처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종형 기자 golee@



한국 전통예절 배우기 힘들어요 지난달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시 광산구 유스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주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국제이해캠프'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전통예절을 배우고 있다. 이번 캠프는 유네스코 광주·전남 학생연합회 소속 18개교 중·고생 91명과 지역대학 유학생 15명 등이 참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완도 양식장 성폭행 미수 60대 영장 피해자 남편 사인도 조사

완도의 한 육상 양식장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던 60대 관리책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은 지난달 31일 H양식장 관리책임자 김모(65)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8시께 완도군 신지면의 한 육상 양식장 종업원 숙소에서 여종업원 B(여·23)씨를 성폭행하려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B씨가 저항하며 달아나자 B씨의 집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범행 일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의 여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7일 밤 실종된 뒤 다음달 반사체로 발견된 B씨 남편 H(41)씨의 사인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우선 H씨가 실종 당일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의 진술에 따라 양식장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타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방과후 학습·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광주 인근 농촌학교 살리기

시교육청 15교 15억 투입... 광주시교육청이 폐교 위기에 있는 농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나선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열악한 교육여건과 학생수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는 농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반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광주 인근 농촌지역 초등학교 12곳(분교 2곳 포함)과 중학교 3곳이며 모두 15억여원이 투입된다. 시 교육청은 우선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생의 잠자는 두뇌를 깨우고 학력증진을 돕는 두뇌 활동 강화 프로그램은 비

롯한 학습 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온 종일 돌봄 학교 운영 등이다. 이외에도 사물놀이와 합창, 판소리, 한국화 등 농촌지역 여건상 소외되기 쉽고 접근이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도 순회강사를 파견해 운영하며,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학생, 학부모 심터를 위한 생태체험관 조성 등 풍광이 아름다운 전원학교 꾸미기 사업도 추진된다. 또 학생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향토 도서관 설치, 화장실, 교실, 창문 등 낡은 학교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긴 통학거리 등 열악한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무료 통학버스 운행, 전 학생 무상 급식 등의 사업도 실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in Korea. Columns include city name, high/low temperature, and weather conditions. Cities listed include Gwangju, Busan, Daegu, Incheon, Ulsan, Daejeon, Gyeonggi, Gangwon, Chungcheong,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and Jeju.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7 days. Columns include date, high/low temperature, and weather conditions. Days listed are 2nd, 3rd, 4th, 5th, 6th, and 7th.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the next 7 days. Columns include date, high/low temperature, and weather conditions. Days listed are 2nd, 3rd, 4th, 5th, 6th, and 7th.